

주요 천문 현상

10월

- 7일 06:00 수성 내합
18:04 상현
8일 06:57 한로(태양 황경 195°)
10일 17:51~19:13 해왕성 엄폐
15일 05:02 망
14:00 수성 유(서→동)
20일 09:46 토왕용사(태양 황경 207°)
21일 20:55 하현
오리온자리 유성우(ZHR:30)
22일 19:00 수성 서방최대이각(18° 19??)
23일 10:09 상강(태양 황경 210°)
29일 08:14 합식

#토왕용사(土王用事) : 각 계절 끝에 해당하는 기간인 토왕지절(土旺之節)의 첫째 되는 날.
태양이 황경 27도, 117도, 207도, 297도의 위치에 올 때이다.

S	M	T	W	T	F	S
			1	2	3	4
			()	()	()	()
5	6	7	8	9	10	11
()	()	()	()	()	()	()
12	13	14	15	16	17	18
()	()	()	()	()	()	()
19	20	21	22	23	24	25
()	()	()	()	()	()	()
26	27	28	29	30	31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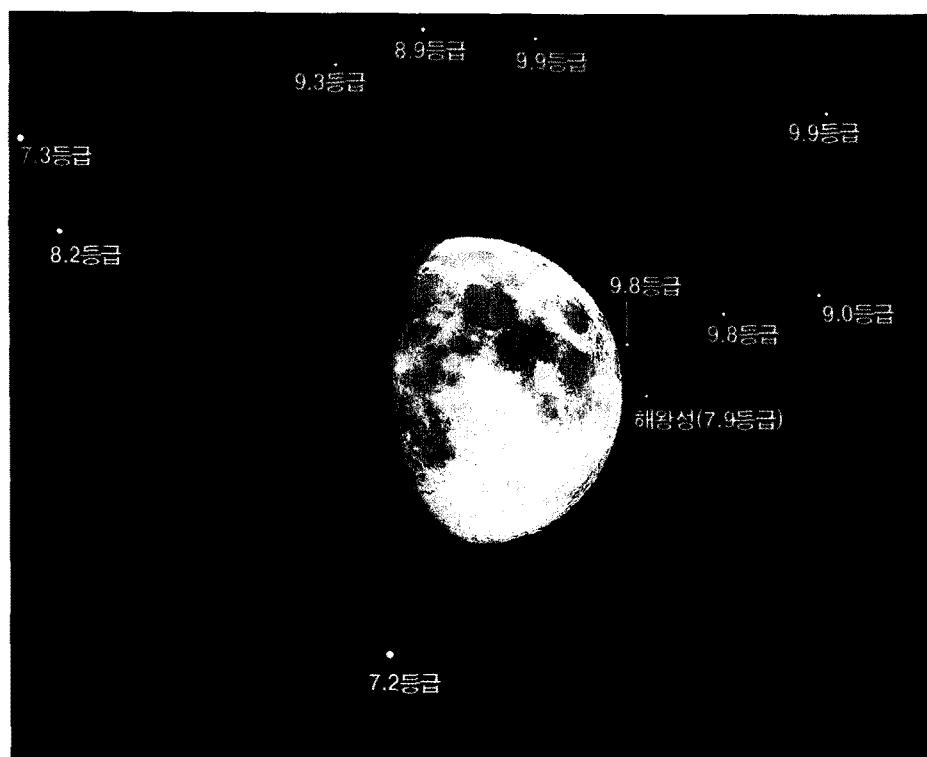
상현
망
하현
합식

◎ 10월 10일, 해왕성 엄폐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해왕성 엄폐이다. 이날 엄폐는 오후 5시 51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해 지는 시각이 저녁 6시 2분으로 하늘 이 밝은 상태에서 해왕성이 달 뒤로 사라지기 때문에 이 때 해왕성을 볼 수 없다. 해왕성이 달 뒤에서 빠져나오는 시각은 저녁 7시 13분으로, 지평선을 기준으로 달을 봤을 때 달의 오른편(3시 방향)에서 빠져나오는 해왕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해왕성의 밝기는 7.9등급으로 맨눈으로는 볼 수 없으며, 쌍안경이나 작은 망원

경이 있어야 관측이 가능하다. 해왕성이 나오는 시각에 달 주변으로는 해왕성과 비슷하거나 밝은 별이 없기 때문에 해왕성과 별을 혼동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같은 달에 의한 행성의 엄폐나 일식 등, 달과 관련된 천문 현상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매일 밤 달의 위치를 관측하면 약 13°씩 동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별 사이를 지나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7.3일이며, 이를 항성월이라고 한다. 따라서 달은 하룻밤동안 지구의 자전에 의해 동에서 서로 일주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달 자신의 공전운동으로 서에서 동으로 조금씩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달의 일주운동 속도는 해나 행성, 항성보다 느리고, 결과적으로 이를 천체가 상대적으로 느린 달 뒤를 앞질러 나오는 현상인 엄폐나 일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 해왕성이 달 뒤에서 빠져나온 후의 달 주변 모습으로, 10등급보다 밝은 별이 표시되어 있다.